

## 전희승 선교사님 선교보고

### 선교 보고 및 인사말

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어 영혼을 살리는 큰 군대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 귀한 헌금을 공급해 주시니 큰 힘을 얻습니다. 마침 마다가스카르에 선교비를 보냈어야 했었는데 귀한 사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. 식량과, 의류, 과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민학교 4 곳에 의류와 쌀, 비스킷,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.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선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있는데, 마다를 떠나있음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시간에 보내주신 물질은 부담을 내려놓게하는 큰 위로였습니다.

한빛교회가 새로운 복음 사역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을 지닌 교회로 더 깊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.



### 증보기도제목

- 매년 기근에 시달리는 건조기후인 남부 지방이 최악의 가뭄으로 100 만명 이상 기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. 남부 지방에 일회성 도움이 아닌,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
- 빈민가의 호산나 학교들이 코로나로 인해 휴교와 개교를 반복하고 있는데, 좁은 집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찬양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성령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길
- 전희승 선교사님께서 수술한지 여러달이 지나도 간헐적 통증이 심해 아직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.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주세요
- 마다의 정치, 경제, 종교, 문화 지도자들을 깨우사 국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다를 살리고 변화시키기를
- 우리가 어느 공간, 시간에 거하든 신앙을 잘키겨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
- 두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